

# 수돗물도 제대로 못쓰던 송도마을 내년까지 확 달라진다

### 새뜰마을 사업 본격화...43억 투입 22개 주거개선사업 추진 상하수도·도시가스 관로 설치...체육공원·마을텃밭 조성도

목포시의 대표적 주거 취약지역인 동명동 송도마을에 대한 새뜰마을 사업이 본격화된다.

10일 목포시에 따르면 새뜰마을 사업은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송도마을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게 핵심 골자다.

오는 2019년까지 총 사업비 43억원(국비 33억과 지방비 10억)이 투입돼 안전·재해 방지 기반시설 구축하고 생활 취약환경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5개 분야 22개 세부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마을길이 협소하고 평균 경사가도가 20도에 달해 재난발생 시 대형사고 위험이 높고 생활품 운반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쪽 옹벽에서 동쪽 체육공원 예정부

지로 이어지는 소방도로(사업비 9억8000만원)를 개설한다.

또 상수관로 불량과 노후화, 우·오수 유출, 도시가스 보급률 미진, 골목길 상습 결빙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마을 전체에 하수관로와 상수도, 도시가스 공급관로 설치(9억2000만원)에 나선다.

이와함께 도로 미끄럼 방지를 위한 핸드레일과 보안등(14개소), CCTV(5대) 설치도 1억5000만원을 들여 추진한다.

송도마을은 30년 이상 노후주택 83호와 공·폐가 51호, 무허가 주택 44호, 슬레이트 지붕 47호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집수리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대대적인 주택정비 사업(총 6억원)을 전개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시는 폐가는 철거하거나 신축을 통해 커뮤니티센터와 체육공원, 마을 텃밭 등으로

활용하고 경로당 개보수와 커뮤니티센터, 독거노인들을 위한 공동 흡 등 주민 공동 이용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외에도 요가·건강 마사지·치매 예방 등 주민 건강프로그램과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마을 소식지 및 마을 이야기 책자 제작, 주민역량 강화 등 사회·경제적 재생 사업도 펼친다.

앞서 목포시는 지난해 3월부터 간담회와 워크숍, 현황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

현재 위험 옹벽 정비공사는 50%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마무리됐다. 마을 안길 도로와 공동 흡 등 2차 사업은 오는 7월부터 추진된다.

목포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송도마을 새뜰마을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주거 취약지역의 환경개선과 기반 시설 정비로 공동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시의 대표적 주거 취약지역인 동명동 송도마을에 대한 새뜰마을 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43억원이 투입돼 22개 세부사업이 추진된다. 사진은 드론 촬영한 송도마을 전경. <목포시 제공>

한편 송도마을은 내항과 국제여객선 터미널 사이에 있는 동명동 77계단 인근 앞 반 절개지 위에 위치한 도심 속 오지로 6월 현재 149세대 27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 김암기 화백 예술혼 숨 쉬는 노적봉 미술관

### 시, 예술공원내 조성...유족, 작품 등 543점 기증

목포 서양화단의 거목인 고(故) 김암기 화백의 예술혼이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이하 노적봉 미술관)에 동지를 든다.

목포시는 노적봉 미술관에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들여 김암기 관을 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

김암기 관은 노적봉 미술관에 812.36㎡ 면적의 수장고를 비롯해 작업 재현실과 전시실 등을 갖추게 된다.

당초 목포시는 원도심에 위치한 옛 도시 개발사업단 청사를 리모델링해 가칭 '시립 김암기 미술관'을 조성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학술연구 용역 결과 원도심 지역 내 문화예술 기반시설 집중으로 경쟁력 극대화를 위해서는 노적봉 미술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이 제

시돼 계획을 변경하게 됐다.

목포시는 지난 4월말 김암기 관 시설 계약역을 마치고 현재 미술관 홍보실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목포시는 지난 2016년 11월 김암기 화백의 미망인 서순덕 여사와 김암기 화백 작품 및 소장품 등 543점을 목포시에 기증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기증품목에는 김 화백이 목포를 주제로 일생 동안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삼학도 이야기'와 '유달산 초가', 'N화백과 죽동 골목' 등 유화 158점과 크로키 95점을 비롯해 소장품인 도자기와 수석 등 245점 등이 포함돼 있다.

김 화백은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이자 한국현대미술의 거장인 수화 김환기 화백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 전경.

의 집안 동생으로 80평생을 구상화에 전념해 자신이 타고 자란 신안도와 목포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 섬들을 묘사하는 데 바쳤다.

목포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김암기의

작품세계와 예술정신을 기리며 근대문화유산과 연계한 지역 문화자산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 시정 소통창구 '갯(바위) 뉘우스'

### 시 SNS 뉴스 서비스 인기...고정 구독자 1만4000명

"갯(바위) 뉘우스를 아시나요?" 목포시가 올 1월부터 매주 제작해 제공하는 '갯(바위) 뉘우스'가 시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소통행정의 한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목포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정보가 담긴 콘텐츠를 제작해 '갯 뉘우스'라는 이름으로 매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갯 뉘우스의 인기는 기존 시정소식지가 분기별로 발행돼 시청 홍보 측면이 강하고 시의성이 떨어지는데 비해 매주 신속하고 유용한 정보를 손쉽게 받아들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제 막'이라는 의미의 '갯'에 뉴스를 해학적으로 풍자한 뉘우스가 더해져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줄 뿐만 아니라 갯바위를 형상화한 '갯돌이(썩수 호)와 갯순이(홀수 호)' 캐릭터도 흥미롭다는 게 목포시의 분석이다.

현재 갯 뉘우스의 고정 구독자는 1만 4000명으로, 연말이면 2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목포시가 SNS를 통한 홍보에 공을 들인 것은 지난해 5월 '목포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서 부터다.

여기에 지난해 7월 일반 시민들로 'SNS 서포터즈(20명)'가 구성되면서 목포시의 SNS 홍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서포터즈는 드문드문기에서부터 이주 여성, 강사, 대학생, SNS 파워블러거까지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이 참여해, 자체 동영상 제작은 물론 나레이션도 직접 더빙하는 등 역량을 선보여왔다.

특히 이들이 페이스 북이나 카카오톡에 목포 골목길 등 숨겨진 관광정보를 소개해 전국으로 전파되면서 외지 관광객 유입에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시청 내 각 부서별 2명씩 총 132명으로 구성된 'SNS 홍보관' 들도의 육적인 활동을 펼쳐 지난해에만 347건의 시청홍보 콘텐츠를 제작·게시하는 성과를 냈다.

목포시 공보과 관계자는 "SNS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수월하고 확산속도가 빨라 중요한 미디어로 자리매김했다"면서 "갯 뉘우스 등 다양한 SNS 채널 운영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생생한 시정 소식과 다양한 관광 정보를 제공해 목포를 전국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 신안 우이도~목포 1일 생활권

### 목포해수청 여객선 취항 ...하루 2회 운항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평전)은 신안군 우이도-목포 항로에 차도선형 여객선 '드림아일랜드호'가 지난 8일부터 신규 취항했다고 밝혔다.

드림아일랜드호는 하루 2회 우이도와 목포간을 운항한다.

그 동안 우이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낙도보조 여객선이 목포항까지 하루 1회밖에

운행하지 않아 도서주민과 관광객의 여객선 이용에 제한을 받아왔다.

목포해수청은 이번 민영 여객선 취항으로 우이도와 내륙간 1일 생활권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항로 폐업으로 해상교통이 두절된 사치도를 기항하는 등 우이도와 사치도 등 지역 해상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돼 도서주민은 물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드림아일랜드호는 지난 2월 건조된 449t급 차도선으로 여객 300여 명과 승용차 35대를 동시에 수송할 수 있다.

김평전 목포해수청장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해상교통 편의를 위해 신규항로 개설과 소규모 어항·포구의 접안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 부동산 실무전문가 박관식대표의 특별세미나

#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투자전략!

새정부의 8·2 부동산 대책과 계속되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들... 아파트, 상가,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각종규제·공급과잉·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떠오르는 토지시장의 해답은 무엇일까?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경기북부지역의 전망은? 국가에서 개발하는 신개발지를 찾아라

**행복한 부동산 강의와 상담이 함께하는**

[ 박관식 전문가의 방송 안내 ]

▶ WOW 한국경제TV '박관식의땅땅땅' 생방송 출연중!! (매주 일요일 저녁7시(본방) / 밤11시(재방))

박관식 대표

- 한국토지개발원
- 한국경제TV '박관식의 땅땅땅' 생방송 출연중
- RTN 부동산TV '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 MTN 미니투데이 '박관식의 TV 토지이야기' 출연
- 한국경제TV '부동산재테크 NOW' 출연
- 한국경제TV '부동산화랑인' 출연

최기홍 전문가

- 한국토지개발원
- 서울경제TV SEN '똑똑부동산' 생방송 출연중
- GTV '똑똑부동산' 출연중
- GMTV 출연중
- 생활체육TV 출연중

류태욱 전문가

- GTV '똑똑부동산' 출연중
- NOLL TV 출연중
- 생활체육TV 출연중
- FUN TV '부동산에겐' 출연
- 서울경제TV '똑똑부동산' 출연
- GMTV 출연중
- COOK TV 출연중
- 토마토TV '미니맨' 출연

무료 특강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6월 13일(수) / 오후 2시~5시

\* 장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59-2) (1호선 김대중컨벤션센터(마복역)하차 5분출구 직진 200m(3분소요))

광주

- ✓ 수도권 및 지방 주택, 아파트시장의 전망
- ✓ 전국 토지시장의 전망과 분석
- ✓ 평택 부동산시장의 전망과 분석
- ✓ 최고의 투자 유망지역을 찾아라
- ✓ 소액으로 건물주 되는 법 특강!
- ✓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투자비법 공개!

\* 당일 혼잡할 수 있으니 사전접수 바랍니다 \* 당일 특별 무료상담 진행

**DJM 카페** "한국토지개발원 토지의 神"에 가입해서 부동산정보교류 함께해요

(KLD) 한국토지개발원

부동산세미나 문의 : 02)595-4236, 4237

"한국토지개발원"을 검색해서 친구추가를 해주세요.